동북의 소도시 매하구 문화관광의 '새 모델'로 탈바꿈

길림성 동남부에 위치한 매하구시는 최근 몇년 동안 지리적 우세를 바탕으로 천연자원과 문화자원에 의존하여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. '음식, 호텔, 교통, 관광, 소비, 오락' 전 사슬을 밀접하게 통합하고 참여, 체험 등 혁신적인 방법으로 소비 활력을 자극하여 2,179 평방키로메터에 불과한 이 동북 소도시는 문화관광 발전의 '새 모델'로 탈바꿈했다. 요즘 장마철임에도 매하구시는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열기가 뜨겁다. / 손맹번기자

지북촌 (知北村)

▲ 지북촌의 정품문화관광민박

▲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곳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.

'쿠웰잡화점'에는 어릴 적 좋아하던 간식이 쌓여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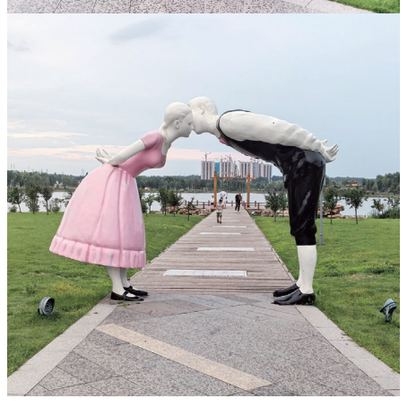
관광용 렬차를 타면 지북촌의 남다른 전원미를 느낄 수 있다. ▶

▼ 아름다운 꽃바다에서 사람들이 분분히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.

해룡호 (海龙湖)

▲ 짙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호심도

▲ 한 아이가 해룡호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다.



▲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'손에 손잡고 광장'

◀ 해룡호에 있는 강남 특색의 경관공원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느낌을 준다.

동북불야성 (东北不夜城)

▲ 폭우가 내린 후의 '불야성'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흥성하다. 큰비에도 관광객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.

▲ '불야성'의 각양각색의 포장마차마다 음식을 맛보러 온 사람들로 붐빈다.

主管 / 主办 : 吉林日报报业集团 出版单位 : 吉林朝鲜文报社 印刷 : 吉林日报社印刷厂 地址 : 长春市绿园区普阳街 2366 号 邮编 : 130011 传真 :87627100 广告许可证 :2200004000046 定价 : 180 元 / 年
编务办 : 87619812 全媒体中心 : 87616700 发行广告管理部 : 87627091 延边记者站 : (0433) 2518860 吉林记者站 :13069156625 梅河口记者站 :13604447151 白山记者站 : (0439) 8224384 首尔分社 :+82 (02) 7868089